

여야, 언론중재법 격돌... “합의된 안건” vs “언론장악 멈춰라”

민주, 법사위서 심사 강행 국민의힘 법사위 앞 규탄시위

24일 국회 법사위에서 여야가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두고 격돌했다. 국민의힘은 5·18 역사왜곡처벌법을 ‘5·18 관련 재갈법’이라고 부르며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반대하고 나섰다.

이날 오후 법사위 전체회의에 언론중재법 개정안과 사립학교법, 탄소중립 기본법 등 각 상임위에서 단독 의결된 법안들이 회부된 것부터 갈등의 소재가 됐다.

국민의힘 간사인 윤한홍 의원은 이 법안들이 일방적으로 회부됐다며 “국민 앞에서는 협치 쇼를 하면서 뒤에서는 날치기해 놓고 법사위까지 날치기하려고 한다”고 비난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박주민 의원은 “안건과 관련해 윤 간사를 직접 뵈 세 번 이상 되고 통화도 굉장히 많이 했다”며 “저는 합의가 됐다고 인식을 했다”고 반박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이 법사위 회의실 앞에서 규탄대회를 연 것을 두고도 언쟁이 벌어졌다.

민주당 김영배 의원은 “방역수칙을 지키지도 않고 집단으로 의사표시를 하는 모습이 썩 좋아 보이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그러자 국민의힘 전주혜 의원은 “민주당이 언론중재법의 문제위 날치기 통과로 국회법을 위반한 상태에서 방역수칙을 운운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맞받았다.

국민의힘 조수진 의원은 “민주당은 악법들을 아홉 개의 힘으로 강행하려 할 것이다. 북한에도 없다는 기립 표결이 아마 등장할 것”이라며 “이 자리에 둘러치러림 조용히 앉아 있으라고 민주당이 우리에게 강요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눈 수술 두 번 하고 오늘 나왔다”며 “이 자리에서 못볼 걸 많이 봐서 그렇다. 그럼에도 오늘 나왔다”고 덧붙였다.

국민의힘의 반발은 회의장 밖에서도 이어졌

다.

김기현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법안 심사가 예정된 법사위 회의실 앞에서 소속 의원들과 규탄대회를 열고 “언론재갈법은 언론을 말살하려는 못된 법”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민주당이 헌법을 무시하고 언론재갈법을 통과시킨다면 오늘도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가 붕괴하는 시발점이 될 것”이라며 “독재국가로 가는 못된 계획”이라고 성토했다.

문제위 야당 간사인 이달근 의원은 취재진을 향해 “부패를 저지른 사람에게 다 비선 실세가 있다”며 “나쁜 짓 한 재벌총수 손자가 얼마나 많다. 그 부분에 대해 여러분이 손을 댈 수 없게 만드는 법

안”이라고 호소했다.

그는 여당이 지난해 12월 강행 처리했던 5·18 역사왜곡처벌법을 ‘5·18 관련 재갈법’이라고 부르며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그 연장선으로 평가하기도 했다.

이준석 대표는 이날 오후 한국신문협회 등 7개 언론단체 회장단과 면담하고 “민주당이 돈이나 정벌적 대상으로 (언론의) 펜을 꺾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게 얼마나 무모한 것인지 국민에게 같이 투쟁해서 보여주자”라며 연대를 강조했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연합뉴스

송영길 부동산 정책 ‘내로남불’ 혁파 의지 빛바래

부동산 투기 의혹 12명 “탈당 권유가 전부” 비판 야 12명 적발에도 공격 못해

국민의힘 등 야당 의원들의 부동산 투기 의혹이 제기되면서 더불어민주당도 좌불안석이다.

민주당 송영길 대표가 내세운 부동산 내로남불 혁파 의지가 빛이 바래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국민권익위 조사에서 부동산 투기 의혹을 받은 자당 의원 12명에 대해 ‘사상 초유의 조치’라며 내린 탈당 권유가 결과적으로 ‘용두사미’ 모양새가 된 것이다. 특히 국민의힘 의원 대상 권익위 전수 조사 결과까지 발표되면서 대응에 나서야 하는 민주당으로서는 내로남불 프레임이 작동할 게 뻔한 탓에 벌써부터 곤혹스러운 표정도 보인다.

24일 현재 탈당 권유를 받은 민주당 의원 12명 중 출당 조치된 비례대표 2명을 제외한 10명이 민주당 당적을 그대로 보유 중이다.

민주당은 탈당을 거부하는 의원 5명 외에 이미 탈당계를 낸 5명의 서류조차 처리하지 않은 상태다.

정당법에도 탈당 효력은 탈당계가 접수되는 대로 발생한다고 규정돼있지만, 처리 의지 없이 미적했다는 지적이 제기될 수 있는 대목이다.

민주당은 탈당 거부자들이 버티는 상황에서 지도부 권유에 따라온 5명의 탈당계만 먼저 처리하면 형평성 문제가 생긴다는 입장이다.

지도부 관계자는 “탈당 거부자들을 설득해 한꺼번에 처리하려고 했는데 경찰 수사 결과 통보 시점이 다가와 기다린 것”이라며 “수사 결과가 다 나오면 조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른 당 관계자는 “탈당계를 낸 의원들은 당내 활동을 하지 않고 있는 준탈당 상태”라며 “정치적 사형 선고를 받은 것과 같다는 점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송 대표가 “내로남불과 부동산 문제에 대한 국민의 불신을 해소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로, 교육지책의 결단”이라면서 극약처방으로 꺼내



인사말하는 송영길 대표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대표가 24일 서울 여의도 한국노총 대회의실에서 열린 '한국노총-더불어민주당 고위급 정책협의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들었던 탈당 권유카드가 무색해졌다는 비판은 피할 수 없어 보인다.

당 안팎에서는 ‘정치적 쇼’를 했다는 비판마저 나온다.

여권 원로인 유인태 전 의원은 이날 KBS 라디오 인터뷰에서 “처음에 송 대표가 탈당 권유를 했다가 흐지부지되지 않았나”며 “자꾸 정치를 그렇게 ‘보여주기식’으로, ‘쇼’처럼 하는 건 마뜩잖다”고

지적했다. 이러한 분위기 탓에 이번 권익위 조사에서 국민의힘 의원 12명이 적발된 것을 두고 공격을 퍼붓기도 곤란한 상황이었다.

윤호중 원내대표는 원내대책회의에서 “납득 가능한 상응 조치와 적극적인 수사 협조에 나서줄 것을 강력히 요청한다”고 밝혔다.

내부적으로는 탈당이나 제명 등 강력한 조치를 요구하면 자칫 ‘민주당부터 탈당 문제를 해결하

라’는 역풍이 부메랑으로 돌아올 수 있는 만큼 끄고 앉는 분위기도 읽힌다.

한 지도부 관계자는 “우리가 대놓고 공격하기엔 명분이 떨어질 수 있다”면서도 “국민의힘은 최소한의 의원 실명을 공개하고, 최소한 우리 정도의 수위의 조치는 해야 한다”고 말했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연합뉴스

세종 의사당 분원 설치법안 국회 운영위, 30~31일 의결

국회 운영위원회는 24일 운영개선소위원회를 열어 세종시에 국회의사당 분원을 설치하는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을 여야 합의로 의결했다. 개정안은 ‘세종특별자치시에 국회 분원으로 세종의사당을 둔다’고 명시했다.

소위는 법안 부대의견에 ‘국회사무처는 2021년 설계비 예산을 활용해 세종의사당 건립에 관한 기본계획을 조속히 수립한다’는 내용을 넣었다. 법안은 공포 즉시 시행된다. 운영위는 오는 30~31일 전체회의를 열어 개정안을 심사, 의결할 예정이다.

민주당 한준호 원내대변인은 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현재 벌어지고 있는 중앙부처 공무원들의 출장 문제도 상당 부분 해소돼 행정효율이 극대화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여야 간사가 전체회의를 30~31일 정도로 조율 중인데, 양당 간 큰 이견 없이 합의되어 9월 정기국회에서 무리 없이 통과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오광록 기자 kroh@

군 성범죄 민간법원서 재판 법사위, 군사법원법 통과

군 성범죄를 1심 단계부터 군사법원이 아닌 민간법원에서 재판하도록 하는 법안이 법사위 법안소위를 통과했다.

국회 법사위는 24일 법안심사 제1소위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군사법원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수사·기소·재판이 모두 군 조직 내부에서 이뤄지는 현행 군사법 체계가 피해자 보호에 소홀하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최근 공군과 해군에서 잇따라 발생한 성추행 피해 부사관 사망 사건이 계기가 됐다.

개정안은 또 ‘피(非)군사범죄’ 피해자인 군인이 사망한 사건이나 입대 전에 저지른 범죄 등도 1심부터 민간법원에서 담당하도록 했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대한의사협회 의료광고심의필 제201210-중-116876호 단, 환자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튼튼한 '척추' 튼튼한 '관절'

개원 19주년!!

2021년 첨단우리병원은 철저한 감음관리와 세심한 회복관리를 위해 항상 노력하겠습니다.

튼튼한 척추 튼튼한 관절
첨단우리병원

대표전화 | 062) 970-6000
전화로 MRI를 미리 예약을 하시면 1~2시간 이내에 진단 및 치료가 가능!

모던 슬라브옥상 칼라강판 지붕공사 및 스틸방수

아파트, 빌라, 원룸, 주택, 상가건물, 대형빌딩 등(슬라브 옥상) 시공

옥상지붕공사

슬라브 주택, 데스리 및 한옥 등은 칼라강판 지붕공사

옥상 스틸방수

갈라지고 물이 새는 옥상바닥 겨울의 차가운 냉기! 여름의 뜨거운 열기! 방수와 단열 한번에 해결!

옥상지붕공사 및 스틸방수 무료견적 디자인 등록 제30-0934833호 제30-0949873호 특허청

광주·전남 같이 하실 분 모십니다.

062)531-3530, H. 010-9229-3530